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5. 22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영국, 청년층의 과격화 및 테러조직 가담 우려 제기
  - 5.14 영국 대테러부대는 코로나19 정책으로 시민들의 격리와 고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동이 점점 과격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, 인생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어른보다 과격화되기 쉬워 테러단 가입 등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
- 스페인, '축구경기장 드론 테러' 모의 혐의 ISIS 조직원 적발
  - 5.18 스페인 경찰은 바르셀로나에서 칼·차량을 이용한 테러를 계획한 ISIS 연계조직 'DAESH' 소속 모로코인을 검거하였다고 발표, 용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축구경기장을 겨냥한 드론 테러 모의 사실도 자백
  - \* 코로나로 인해 축구경기가 열리지 않자 칼·차량을 이용한 테러로 계획을 수정

#### 미주

- 美, 해군기지 테러범과 알카에다 간 연관성 확보
  - 5.18 FBI는 펜서콜라 해군기지 총격테러('19.12.6 / 사망 3, 부상 8)를 일으킨 사우디 장교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, '15년에 과격론자가 되어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와 접촉 및 철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사우디 공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
- 美, 수단에 美 대사관 폭탄테러 관련 손해배상 지급 판결
  - 5.18 美 대법원은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美 대사관 폭탄테러사건\*과 관련, 수단이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에 은신처와 물류 공급망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며 희생자들에게 약 102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
  - \* '08.8.7 케냐 소재 美 대사관 앞에서 알카에다에 의한 트럭 폭탄테러 발생(사망 224, 부상 다수)

## 아 · 태평양

- 인도, 잠무 카슈미르 무장단체 소탕작전 전개
  - 5.14 인도 보안군은 잠무 카슈미르 내에서 활동 중인 헤즈블 무자헤딘(HM) 및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 소속 테러범 10명에 대한 현상금을 상향하고,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대테러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
- 아프간, 1·2인자 간 ‘권력 분할 합의’로 내분 해소
  - 5.17 현지언론은 「가니」 대통령과 「압둘라」 최고행정관이 내각 구성권을 나눠 갖는 권력 분할안에 합의, '19.9월 대선 이후 계속된 내분이 해소되고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이再開될 것이라고 보도
    - \* △ 「가니」 대통령은 정부내 수장 자리 유지, △ 「압둘라」는 탈레반과 협상을 담당하는 국가화해위원회를 이끌며 아프간 평화 협상 주도

## 중 동

- 신임 이라크 총리\*, 빠른 시일내 ISIS 공격再開
  - 5.17 「무스타파 알 카디미」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내 정치·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ISIS 격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군사작전을再開할 것이라고 발표
    - \* '19.12월 반정부 시위로 「아딜 압둘 마흐디」 前 총리 사퇴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라크 정보부장 출신 「무스타파 알 카디미」가 총리에 임명('20.5.8)

## 아프리카

- 소말리아, 알샤바브의 자살폭탄 테러로 주지사 등 4명 사망
  - 5.17 로이터통신은 소말리아 북동부 펀틀란드 자치지역에서 알샤바브의 자살 폭탄테러 차량이 「아흐메드 무세 누르」 무дук州 주지사 차량을 공격, 주지사와 경호원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
    - \* 알샤바브는 서방세력의 지원을 받는 소말리아 중앙정부를 전복하고,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해석하는 독자적인 국가 설립을 위해 테러활동을 지속 전개

중국 우루무치市 연쇄폭발 테러

- '14.5.22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市 인민공원 인근 시장에서 연쇄폭발 테러 발생, 31명 사상·94명 부상
  - 07:50경 테러범들은 SUV 차량 2대에 분승, 시장으로 돌진하여 사람들을 덮친 뒤 주변으로 다수의 폭발물을 투척
    - \* 목격자들은 “테러범 공격으로 수 차례 폭발과 높은 화염이 발생했다”고 증언
  - 현지언론은 아침식사를 하고 장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늘었다고 보도
-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을 ‘심각한 폭력 테러’로 규정했고, 漢族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 공격이라는 점에서 위구르족을 배후로 지목
- 특히 同 테러는 우루무치驛 테러\*(14.4.30) 이후 경계태세가 최고조인 시기에 발생, 당시 중국 대테러 능력의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평가
  - \* 「시진핑」 주석의 우루무치 방문 직후 우루무치역 자살폭탄 공격 발생(사망 3명, 부상 79명)

< 신장위구르 자치구 >

-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, 원유·석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·몽골·카자흐스탄·아프간·인도·파키스탄 등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제·군사적 요충지



\* 중국 석유 매장량의 30% 보유, 중앙아시아 수입 천연가스관 매설 지역

- 1759년 청나라 건륭제가 강제 복속한 이후 중국 영토로 편입되었으며, 신강(新疆)은 ‘새로 얻은 땅’, 위구르는 ‘단합·화합’이라는 뜻
- 인구 2,300만명 중 약 45%인 1천만 명이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중국의 강압적 통치와 한족 이주자들의 경제적 이권 독점으로 인한 차별 등으로 저항과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무력투쟁이 지속